

축구

6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원형과 지폐형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진 손흥민 기념 메달이 5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공개됐다. **뉴시스**

손흥민 기념메달 나왔다

원형·지폐형 두가지…메달은 7700개 한정 제작
18일까지 판매…수익금 일부 유소년 발전에 기부

한국조폐공사는 5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손흥민 기념 메달 공개 행사를 열었다.

메달은 원형과 지폐형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소재는 순도 99.9%의 금 또는 은이다.

원형 메달 앞면은 득점 후 포효하는 손흥민을, 뒷면에는 'SON' 문자와 등번호 '7'이 새겨진 유니폼 뒷모습을 담았다. 지폐형 메달의 앞면은 공격적인 드리블로 득점 후 환희에 찬 손흥민 얼굴을, 뒷면에는 세리머니 하는 전신 모습을 디자인했다. 메달은 손흥민의 등번호 7을 의미해 77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한다.

메달 케이스는 축구공을 상징하는 육각형 모양과 축구장을 연상시키는 도안을 채택했다. 메달을 전시할 수 있는 쇼 케이스를 결합해 '그라운드 위의 손흥민'을 표현했다.

공식메달은 이날부터 18일까지 2주간 조폐공사 온라인쇼핑몰, 현대백화점 온라인몰(더현대닷컴, Hmall), 하나은행 전국 지점, 풍산화동양행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된다. 수익금 일부는 손흥민의 뜻에 따라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기금에 쓰인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대한민국의 맛과 문화를 담은 고품격 제품을 꾸준히 선보여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일낸다” 야망 드러낸 김학범호…베테랑도, 새내기도 특별할 올림픽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5일 오후 파주NFC에서 가벼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파주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권창훈 “책임감·희생으로 철저히 준비”

“최고 성적 목표” 두번째 올림픽 투지
이동경 “런던대회 형들처럼 금빛염색”
첫 출전 송민규 “오직 올림픽만 생각”

도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험겁고 고통스러웠던 ‘살 깎아내기’ 과정을 끝낸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축구대표팀은 2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조지력을 극대화하고, 우리만의 ‘비기’를 찾기 위한 강화 훈련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수확한 동메달보다 한 걸음 전진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김 감독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나 도 잘 모르겠다. 제대로 큰 사고를 치고

싶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는다.

이심전심, 스승의 야망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도 전달됐다. 너나할 것 없이 “최대한 오랜 시간을 도쿄에서 보내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다용도 공격수’ 권창훈(수원 삼성)은 5년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생애 2번째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다.

다만 신분은 바뀌었다. 리우에서는 연령 기준(23세 이하)에 맞는 자원이었으나 도쿄에서는 최고참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주변의 기대가 크다. 그래도 절실함에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리우에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올림픽에 집중하려 한다. 최고의 성적을 위해 책임감과 희생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권창훈은 와일드카드의 역할에 대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김학범호’의 일원으로 뽀 황의조(보르도)에게 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단단히 만들고 있다.

김학범호의 공격 2선을 책임질 ‘에이스’ 이동경(울산 현대)은 금빛으로 머리를 물들인 채 파주NFC에 입소했다.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런던 대회를 떠올렸던 건 사실이다. “그때 형들이 염색을 한 것을 봤다”고 솔직히 답했다.

물론 그에게도 올림픽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무대다. 이동경은 “최종엔트리에 발탁돼 정말 기뻐다.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일이다. 물론 좋은 성적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권창훈과 이동경은 이강

인(발렌시아)과 함께 특급 원발 키커로 통한다. 앞서 김 감독은 “3명의 원발잡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세트피스를 중점 대비하기 위해 선수 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경은 “누구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지만 각오는 뚜렷하다.

송민규(포항 스틸러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올림픽에 100% 간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했다. 계속 (올림픽을) 생각했다”며 활짝 웃었다. 탈 압박과 찬스 포착 등 그만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김 감독은 세트피스 등 공격 상황에서 송민규를 상대 진영 깊숙이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는 “선수마다 각자 장점이 있다. 감독님이 장점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파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설’ 비에이라, 크리스털 팰리스 사령탑 부임

아스널 EPL 무패 우승 일조했던 MF
계약기간 3시즌…“EPL 복귀 기쁘다”

특급 미드필더로 2000년대를 풍미한 파트리크 비에이라(45)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털 팰리스 사령탑에 올랐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비에이라를 새 감독으로 선

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023~2024시즌까지 3시즌이다. 프랑스 출신의 비에이라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EPL 아스널에서 전성기를 보낸 수비형 미드필더다. 전무후무한 아스널의 2003~2004시즌 EPL 무패 우승에 일조한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다. 이후 유벤투스, 인터밀란(이상 이탈리아)을 거쳐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서 선수 생활



비에이라

을 마감했다. 프로 공식전 651경기를 소화하며 총 58골을 넣었다. 프랑스대표팀에서는 107경기에 출전해 6골을 기록했다.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팀에서 지도자생활을 시작한 비에이라는 뉴욕시티(미국), 니스(프랑스)를 이끔며 감독 경험을 쌓은 후 크리스털 팰리스를 맡아 EPL 무대에 사령탑으로 복귀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지난 시즌 EPL 14위에 자리했다.

비에이라 신임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해 기쁘다”면서 “크리스털 팰리스는 모든 게 잘 갖춰진 구단이다. 구단이 계속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いと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야구

〈4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개최지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실점	출판	도루 실패
1	K T	71	44	27	0	0.620	-	8승	0.271	4.00	0.632	394	315	57	56
2	삼 성	76	43	32	1	0.573	3.0	3승	0.276	4.28	0.632	389	351	74	73
3	L G	74	42	32	0	0.568	3.5	1승	0.253	3.69	0.590	341	298	73	46
4	S S G	73	39	32	2	.549	5.0	3패	.258	4.81	.528	386	383	101	56
5	N C	72	36	34	2	0.514	7.5	3패	0.273	4.79	0.485	403	369	100	44
6	키 올	76	38	38	0	0.500	8.5	2패	0.260	4.18	0.568	396	365	49	55
7	두 산	72	35	37	0	0.486	9.5	2패	0.274	4.38	0.471	379	338	62	33
8	롯데	73	31	41	1	0.431	13.5	2승	0.279	5.56	0.353	395	430	63	36
9	K I A	71	28	43	0	0.394	16.0	3승	0.250	5.48	0.457	275	405	29	44
10	한 화	74	27	47	0	0.365	18.5	1패	0.237	4.86	0.410	288	392	40	53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타율	출판	실점	4사	피타율 WHIP
1	류 캐 난	삼 성	2.29	15	90.1	26	23	9	2	0	77	4	89	27	0.225 1.15
2	로 옛 두 산	삼 성	2.38	13	79.1	21	21	7	4	0	78	2	66	29	0.257 1.29
3	최 원 준	두 산	2.40	14	82.1	22	22	7	0	0	73	6	55	24	0.236 1.12
4	대스파이네	K T	2.42	17	96.3	33	26	8	5	7	77	6	99	49	0.124 1.27
5	수아레스	L G	2.56	15	84.1	29	24	7	2	0	69	4	86	34	0.223 1.19
6	원 태 인	삼 성	2.59	14	87.0	29	25	9	4	0	74	8	73	33	0.232 1.22
7	요 키 시	키 올	2.67	16	94.1	32	28	9	5	0	86	8	72	26	0.243 1.17
8	백재현	삼 성	2.68	15	84.0	32	25	7	4	0	73	11	47	42	0.236 1.36
9	미 란 다	두 산	2.87	15	87.2	31	28	7	3	0	72	10	113	38	0.222 1.24
10	루친스키	N C	3.18	15	90.2	37	32	8	4	0	81	7	88	38	0.235 1.27
11	폰 트	S S G	.36	13	75.0	29	28	3	1	0	58	6	82	25	.210 .07
12	고영섭	K T	3.38	13	82.2	32	31	7	3	0	68	6	64	24	0.228 0.98
13	브룩스	K I A	3.45	12	73.0	33	28	2	5	0	88	4	50	17	0.299 1.42
14	켈 리	L G	3.56	15	86.0	34	34	5	4	0	83	10	58	36	0.255 1.33
15	배재성	K T	3.74	14	77.0	35	32	6	4	0	66	4	76	44	0.232 1.42
16	카펜터	한 화	3.93	15	84.2	46	37	3	8	0	74	11	88	48	0.232 1.36
17	김민우	한 화	4.06	15	82.0	39	37	8	5	0	65	11	70	42	0.215 1.26
18	박세웅	롯데	4.11	14	81.0	38	37	3	5	0	70	12	67	35	0.229 1.22

※ 피타율 : 안타÷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이닝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출판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강백호	K T	0.395	71	258	102	9	43	59	7	53	41	1	0.395	1.064
2	양의지	N C	0.350	71	243	85	19	51	69	2	47	30	2	0.423	1.114
3	이정후	키 올	0.344	75	282	97	3	53	48	6	51	21	3	0.351	0.945
4	정 훈	롯데	0.338	69	269	91	9	46	48	7	35	44	0	0.324	0.911
5	홍창기	L G	0.337	74	264	89	3	57	31	13	70	42	0	0.339	0.911
6	박건우	두 산	0.337	57	208	70	2	34	36	6	25	30	0	0.383	0.841
7	강민호	삼 성	0.335	66	224	75	11	33	44	0	24	30	2	0.291	0.920
8	전준우	롯데	0.335	73	278	93	4	50	47	3	45	32	0	0.449	0.874
9	페르난데스	두 산	0.328	69	265	87	10	43	46	0	39	18	0	0.306	0.887
10	노진혁	N C	0.324	66	207	67	6	31	37	1	33	58	5	0.343	0.882
11	하경민	두 산	0.322	67	270	87	4	43	29	2	21	19	3	0.283	0.803
12	안치홍	롯데	0.321	51	196	63	4	23	44	2	24	29	2	0.431	0.851
13	피델라	삼 성	0.319	76	310	99	19	62	62	8	31	42	0	0.274	0.934
14	채은성	L G	0.317	60	224	71	12	42	50	3	25	42	1	0.318	0.917
15	손아섭	롯데	0.310	71	290	90	1	48	29	7	36	32	3	0.302	0.756
16	정은원	한 화	0.305	74	262	80	4	48	20	11	61	51	6	0.333	0.876
17	최원준	K I A	0.301	70	292	88	1	43	24	18	34	32	4	0.297	0.762
18	박해민	삼 성	0.301	73	259	78	3	47	32	28	39	43	0	0.309	0.785
19	최 정	S S G	.301	71	36	71	20	52	56	7	57	53	6	.300	.036
20	김해성	키 올	0.299	76	308	92	3	55	42	27	35	57	18	0.268	0.738
21	이명기	N C	0.295	54	183	54	2	29	14	6	37	24	1	0.308	0.807
22	김선빈	K I A	0.295	66	258	76	2	25	37	0	32	20	3	0.362	0.746
23	김현수	L G	0.292	72	264	77	12	41	47	1	41	26	0	0.217	0.854
24	구자욱	삼 성	0.290	72	279	81	10	56	50	16	31	49	2	0.278	0.833
25	송우현	키 올	0.289	65	235	68	2	30	38	1	27	46	1	0.391	0.761
26	하주석	한 화	0.288	70	267	77	4	42	31	7	33	72	6	0.266	0.786
27	배정재	K T	0.282	71	255	72	4	46	39	8	41	58	1	0.293	0.771
28	심우준	K T	0.282	70	209	59	4	37	28	9	18	35	10	0.283	0.756
29	나성범	N C	0.281	72	295	83	15	54	49	1	32	68	4	0.259	0.845
29	알론소	N C	0.281	71	249	70	18	43	46	7	31	79	2	0.274	0.899
31	양태환	두 산	0.280	72	271	76	16	36	48	1	27	70	5	0.288	0.848
32	김민태	두 산	0.280	68	193	54	5	30	24	0	43	33	0	0.340	0.828
33	이용규	키 올	0.279	71	229	64	0	43	23	8	46	28	2	0.271	0.759
34	노시환	한 화	0.276	71	257	71	13	35	44	4	81	13	0.375	0.842	
35	마치노 도	롯데	0.275	67	229	63	4	33	37	3	38	34	8	0.281	0.760
36	알론소	K T	0.271	60	225	61	7	18	36	1	23	50	2	0.323	0.740
37	이범석	삼 성	0.271	67	207	56	6	23	37	1	37	40	4	0.327	0.800
38	한유성	S S G	.267	67	21	59	13	27	42	0	36	56	1	.250	.853
39	김해성	두 산	0.263	66	228	60	15	45	53	0	49	62	1	0.320	0.882
※ 득점권 타율 = 주자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